

# 무형문화유산 잠녀 가치 확인

9·10일 제3회 해녀축제 성황...잠녀 선언 채택 등 눈길

등록 : 2010년 10월 10일 (일) 17:52:10  
최종수정 : 2010년 10월 10일 (일) 17:52:10

고 마 기자 ✉ popmee@hanmail.net



▲ 제3회 제주해녀축제가 9일과 10일 이틀간 구좌읍 하도리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올해 해녀축제는 2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 잠녀 사진촬영대회 등 바다 중심 행사가 성대히 펼쳐지며 막을 내렸다.

"우리 제주해녀를 5000여명은 해녀문화 전통을 지키고, 수산업의 중요성을 전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바다 어장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한다"(2010 해녀 선언 중)

제3회 제주해녀축제가 9일과 10일 이틀간 구좌읍 하도리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아마(海女)가 참가, 지난 9월 제2회 일본 아마대집합 축제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첫날 전통복장을 한 제주잠녀와 일본 아마가 거리행진을 하고 잠녀선언문을 낭독했다.

제주도립무용단과 일본 도바시 초가지마 사롱고 마츠리 팀이 각각 '해녀춤'으로 지역별 잠녀·해녀 문화의 차이와 눈높이를 보여줬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선언문에 포함시키며 제주와의 공동노력을 명시한 일본과 달리 제주는 바다 환경자원과 잠녀 문화 전통 보존에 대한 의지만을 담아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휴일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 등이 대거 행사장을 찾은 것과는 반대로 잠녀 문화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문화정책과 해양수산본부 관계자 등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아 등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예고됐다.

올해 해녀축제는 9일 제주 잠수굿의 전형인 김녕리 잠수굿과 세화고 학생들의 잠녀 의상 패션쇼 등에 이어 10일 하도리 서문동 해안가에서의 '물질대회'·불턱 체험이 전개됐고 전국에서 사진작가 등 2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 잠녀 사진촬영대회 등 바다 중심 행사가 성대히 펼쳐지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제주학회(회장 이창기) 주관의 제5회 해녀국제학술심포지엄이 11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칼호텔에서 열려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잠녀의 가치를 검증한다.